

영암군, 2회 추경 8천2억 확정...“농가소득 안정 최우선”

1회 추경比 458억 ↑...효율적 배분 초점 편성 생활기반 조성·국책사업 추진 등 우선 과제

영암군이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을 8천2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9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 6일 영암군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06% 458억원 증액된 규모다. 일반회계는 6.02% 410억원 증가한 7천255억원, 특별회계는 6.50% 증가한 777억원이다. 영암군은 유례 없는 정부의 긴축재정 상황에서 건전재정을 기조로 부족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초점을 맞춰 이번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고물가·고금리, 자연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암군민의 삶

과 농가소득 안정, 생활기반 조성과 국책사업 추진 등을 우선 과제로 삼았다. 영암군은 사업의 타당성·효과성을 검토해 관행적 지원, 유사·중복 및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긴급한 현안사업을 위주로 우선 편성했다. 또한 공직자들이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와 전남도를 지속 방문한 결과, 국·도비 보조사업 164억원과 특별교부세 18억원을 증액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은 민생 및 농가소득 안정 분야 ▲전략 작물 육성 지원 57억원 ▲벼재배 농가 경영안정대책비 44억원 ▲친환경 농업 단지 조성 24억원 ▲조사료 생산지원 17억원 ▲가축 살처분 보상금 12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9억원 등이다. 생활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28억원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12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0억원 ▲지방하천 준설사업 10억원 ▲삼

호 시장 조성 5억원 ▲대동제 진입도로 확포장 5억원 ▲전기화물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5억원 ▲삼호읍 지능형 CCTV 설치 4억원 ▲취약지응급실 운영지원 4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국책사업 및 문화관광 기반조성 분야는 ▲월출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20억원 ▲영보정 유리온실 실내정원 조성 8억원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조성 6억원 ▲천하장사 씨름대회 5억원 ▲월출산 스테이션F 조성 5억원 ▲전남 캠핑관광박람회 2억원 등이 주요 사업

이다. 양회관 기획감사과장은 “국가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 등 어려운 군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적 재원 배분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암군민에게 보탬이 되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며 “편성된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집행해 군민 생활안정 및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영암=나동호 기자



강진군이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과 한우 소비촉진 행사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진은 강진군 정수농장의 건강한 한우들. <강진군 제공>

강진군, 한우농가 살리기 경영안정·소비촉진 ‘주력’

예비비 3억여 투입...고온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강진군이 최근 군 예비비 3억여원을 투입, 관내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9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군이 한우 경매가격 하락과 사료비 인상 보합세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산업을 위해 경영안정 지원사업과 한우 소비촉진 행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폭염 최고조 기간동안 폐사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한우 사육농가에 고온스트레스 완화제(9농가, 2천 740kg)를 공급하고, 한우 산지 가격 하락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우 59두 이하 소규모 사육농가에 배합사료, TMR·TMF 사료 구입비용을 농가당 최대 보조 99만원(30두까지)을 지원한다. 또한 고금육 출현을 향상으로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맞춤형 한우개량 지원사업 및 육질개선택, 미생물 단백질, 미네랄블록, 초유분말 면역첨가제 등 각종 축산 기자재(보조사업)를 공급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에 도축 한우 고금육 출현 시 1+등급(10만원), 1++등급(20만원) 연간 30두 이내 지원 및 혈통우·오픈한우 출하·거래시(두 당 5만원) 장려금 지원으로 한우 사육 농가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는 10월28일 개막하는 제9회 강진만 촛불는 갈대축제에서도 강진 한우고기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등 소비촉진 관련 예산 6천만원을 확보했다. 성대한 행사 추진을 위해 9월 중 생산자단체인 한우협회 및 축협 등과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한우 경매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어려운 한우 산업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가 경영안정 사업과 함께 한우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한다”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우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해남군, 추석 연휴 비상진료 체계 구축

14-18일 당직 의료기관·휴일지킴이 약국 운영

해남군은 9일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4-18일 비상진료 체계를 구축,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기간 운영하는 당직 의료기관은 해남종합병원, 해남우리종합병원이며,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 14일에는 관내 48개 병·의원에서 오전까지 외래 진료가 가능하며 15일부터는 당직 병·의원별로 오전 진료를 운영한다. 해남군보건소는 16-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료를 실시한

다. 이와 함께 약국 28개소가 휴일지킴이 약국으로 당직을 정해 문을 열게 되며, 안전상비의약품은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52개소에서 판매한다. 추석 연휴기간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과 약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남군보건소 누리집과 해남소통넷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119종합상황실(국번 없이 119), 전남도 콜센터(국번 없이 120), 응급의료포털 또는 스마트폰 앱(응급의료 정보제공)을 통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해남=박필용 기자

완도군, 지방상수도 정비 완료 “식수난 해결”

총사업비 55억 투입...군외면 사후도 통수식

완도군이 군외면 사후도의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주민 숙원이었던 식수 부족난을 해결했다. 9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군외면 사후도에 주민들과 함께 통수식을 가졌다. (사진)

완도군은 2018년 총사업비 55억원(국비 38억원, 지방비 17억원)을 투입해 공사에 착공했으며, 고금면 장항리에서 군외면 사후도까지 해저 1.8km, 육상 1.8km 등 총 3.6km의 송수 관로와 가압장 2개소, 유량계실 2개소 설치를 2021년 12



완도군 군외면 사후도 지방상수도 통수식. 월에 완료했다. 지난 7월에는 마을 안 급수 관로 정비 공사를 완료 후 시험 운영을 거쳐 지난

4일 지방상수도를 개통했다. 완도군 군외면 사후도는 46세대, 60명이 거주하는 작은 섬이다. 기존에는 해수 담수화 시설을 운영했으나 시설물 노후로 잦은 고장이 발생해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제 지방상수도가 공급됨으로써 위생적인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신안군 특화쿠기 생산 업체 모집 오늘까지 접수...지역쿠기 5종 개발

신안군은 9일 “10일까지 지역특화쿠기 기술 전수를 희망하는 관내 카페 또는 생산 가능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오는 12일 신안군농산물가공센터에서 실시하며 지역 농특산물인 시금치와 땅콩, 무화과 등을 활용하고 군을 상징하는 로고를 포함한 지역색을 입힌 쿠기 5종을 개발해 기술을 전수하는 과정이다. 해당 과정은 2차 교육으로 관내 카페 및 제과 제빵 생산 업체 대상으로 추진하며 1차 교육은 주민 대상으로 지난달 28일 실시했다. 신청 방법은 신안군농업기술센터 해당 읍·면치소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전자우편(vij7677@korea.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신안군은 신안김밥, 신안소금빵, 신안땅콩오랑다 등 다양한 기술 전수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기술 전수 교육을



신안군이 최근 신안군농산물가공센터 교육장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특화쿠기 교육을 진행했다. 작은 사진은 참가자들이 군을 상징하는 로고와 지역색을 입혀 만든 쿠기. <신안군 제공>

통해 농업인과 관내 업체에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소득창출의

기회가 되고 있다”며 “농산물가공센터는 신안군의 농특산물 활용해 농특산

물 소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홍기 기자

‘추석 대비’ 영광군, 명절 연휴 종합대책 추진

14-18일 물가안정·재난 등 종합상황반 운영

영광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군민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024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9일 영광군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당직자를 제외한 8개반(80명)으로 편성된 종합상황반을 운영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 분야에

대한 세부대책을 마련,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지역물가 안전대책반 운영을 통해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점검 및 계량 위반 등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응에 나서고, 재난·재해 대비 상황실을 운영해 각종 사건·사고에 발빠른 대응 체계를 확립해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

로 할 예정이다. 또한 추석 연휴 동안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거와 특별 청소 기동반 운영을 통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급수 대책 상황실 운영으로 상수도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 수도관 파열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광종합병원, 영광기독병원 2개소는 응급실을 운영, 응급 환자 발생 시 신속 대응에 나선다. 보건소에서는 연휴기간 비상진료를 실시하고, 당직의료기관(8개소)과 약국(8개소)도 운영한다. 연휴기간 비상진료

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 안내는 119 종합상황실과 영광군 보건소(061-350-5552)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추석 연휴를 걱정 없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읍·면에서도 민원처리반 등을 운영해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각종 민원을 원활히 해결하는 등 군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종합대책 관련, 분야별 상황실 연락처는 영광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광=김동규 기자

목포시 죽교동통장協, 환경정화 활동

목포시 죽교동통장협의회는 “최근 귀성객·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목포를 자랑하기 위해 죽교동 내 주요도로와 인도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9일 밝혔다. (사진) 운영실 죽교동통장협의회장은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목포, 청결한 죽교동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밝고 희망찬 목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일섭 죽교동장은 “바쁜 일정에도 이른 오전부터 청결 활동을 실천해 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명절을 맞아 주민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다”고 전했다. 한편 죽교동통장협의회를 비롯한 죽교동 자생조직들은 지난 7월부터 죽교동 곳곳을 돌며 제초와 청결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 전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목포=정해선 기자

